

# 19세기 고전소설이 잘 팔린다

《일곱박공의 집》의 호돈 비롯, 디킨즈·트웨인·기싱 등 뜻밖의 반향

실용적인 대중교양서, 신세대 감각의 소설, 에세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95년 서점가 베스트셀러 판매대에 19세기에 씌어진 고전 소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출판가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21세기를 불과 얼마 안 남겨놓은 시기에 19세기의 소설이 팔리는 이같은 현상은 지난 2월에 출간된 19세기 미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나다니엘 호돈의 소설 《일곱박공의 집》(세계문학)이 출간 한달만에 서울 시내 주요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상위에 진입하면서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후 몇몇 출판사들이 그동안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거나 독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한채 묻혀버린 19세기 작품을 발굴해내 출간한 책들이 서서히 관심을 끌었고 《일곱박공의 집》보다 먼저 출간된 책들도 함께 호조를 보이는 예상밖의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 문학사속에서 검증받은 고전 작가들

새롭게 출간되어 95년 상반기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19세기 작가들의 소설은 대략 10여종. 이중 대부분이 당대 소설문학사에 불후의 명작들을 남긴 유명작가들의 작품들이다.

출간 2개월만에 5만부가 팔려나간 《일곱박공의 집》은 《주홍글씨》 《큰 바위 얼굴》 등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나다니엘 호돈이 1851년 발표한 작품으로 국내에는 처음 소개됐다. 미국 세일럼에 있는 일곱 박공의 집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사건을 축으로 식민지시대 미국사회의 갈등을 다양한 상징적 기법으로 그려내고 있다.

개정판으로 재출간되어 최근 서점가에서 서서히 관심을 끌고 있는 《어려운 시절》(푸른산)은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럴》로 국내 독자들에게 익숙한 19세기 영국의 대표적 작가 찰스 디킨즈의 작품. 런던 북부의 공장도시 코크타운을 배경으로 산업혁명의 인간적 도덕적 의미를 파헤친 ‘영국 리얼리즘 소설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4월 마크 트웨인 대표선집 발간작업의 일환으로 출간된 《아더왕과 양키》(미래사) 역시 《왕자와 거지》 《톰 소여의 모험》 등 다른 마크 트웨인의 작품과는 달리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소설이다. 근대 기술문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성찰을 담고 있는 이 책은 특유의 풍자성과 기양에 가지고 있었던

**멀티미디어시대 서점가 베스트셀러 판매대에 19세기에 씌어진 고전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나다니엘 호돈의 《일곱박공의 집》을 비롯한 일련의 책들은 대부분 당대의 문학사에 불후의 명작을 남긴 유명작가의 작품들이다. 이는 19세기 인류가 고민했던 주제들이 현대인들의 고뇌와 흡사하다는 데 있다. 위대한 문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작가의 지명도를 바탕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 리얼리즘의 거장’으로 꼽히는 조지 기싱이 19세기말 영국을 살아가는 군상들의 모습을 통해 현대에 닥쳐올 생활상을 예측해낸 소설 《꿈꾸는 문인들의 거리》(김영사 전2권)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보바리 부인》의 프랑스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미완성 유작으로 최근 출간된 《부바르와 페퀴세》(책세상)도 과학이 모든 것을 대변하기 시작했던 19세기 과학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고 21세기 독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말 출간된 19세기 네덜란드의 대표작가 멀타 툴리의 《막스 하벨라르》(문학수첩)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95년 2월에 출간된 프랑스작가 모빠상의 단편선 《모빠상 피기소설》(장원)도 관심을 끌고 있다.

## ‘베른협약’의 새로운 대안

“이들 19세기 소설들이 국내 출판상황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상태에 불과하지만 이같은 현상이 시사하고 있는 몇가지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최근의 상황을 지켜보는 출판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첫째, ‘좋은 책은 시대를 막론하고 잘 팔린다’는 불변의 진리를 미약하나마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기호가 이젠 변했다’는 단층적인 시대상황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온 90년대 국내 출판분위기에 조심스러운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일곱박공의 집》을 비롯,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19세기 소설들이 서점가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있다. 팔리는 책이 한권 나오면 곧바로 아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작품성을 검증받지 않은 설익은 문학작품들을 앞다투어 출간해 거액의 광고비를 지출해가며 베스트셀러 만들기에 급급했던 출판사들에게는 다시 생각해 볼 ‘책의 가치’를 제공하는 셈이다.

두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번역의 문제이다. 일본어 중역을 통해 국내에 소개된 작품을 반복해서 중복출판해 오던 번역출판 초기의 관행이 사라지고 있는 것. 출판사나 번역자들이 좋은 작가의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기보다는 이미 알려진 작품을 적은 노력을 들여 출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한 예로 나다니엘 호돈의 《일곱박공의 집》의 경우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영문학과에서 즐겨 강독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사실이 의아스러웠다’는 이 책의 기획자인 세계문학 이시우대표의 말은 국내 번역문학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세번째는 최근의 이런 변화가 베른협약 가 입을 앞두고 ‘저작권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견해다. 그동안 호황을 누리던 20세기 작가들을

잡기 위해 고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면서 ‘밥그릇 싸움’을 벌여온 국내 출판사들은 19세기 작가들에게 눈을 돌림으로써 되었던 숨통을 다소 틔울 수 있다는 점.

## 또다른 ‘올림’으로 다가오는 19세기 문학

“이 소설이 100년 전에 씌어졌다는 것을 그 누가 선뜻 믿을 수 있겠는가?”

조지 기싱의 《꿈꾸는 문인들의 거리》역자 후기에서 우리는 19세기가 갖는 의미와 19세기의 책들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 팔리기 시작하는 기현상(?)의 원인을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이 미디어제국시대를 앞둔 전환기라면 산업혁명의 와중에서 시작한 19세기는 기계문명시대를 앞둔 사회적 가치의 전환기였다. 선과 악, 그 어느것에도 봉사할 수 있는 테크놀러지의 시대를 앞두고 19세기 인류가 고민하고 방황했던 주제들은 멀티미디어시대를 앞둔 지금 현대인들의 고뇌와 흡사하다. 19세기 작품이 지금 우리의 독자들에게 팔리는 것이 결코 의외는 아닌 셈이다. 위대한 문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 허연 기자